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사순 제3주일 2016.2.28.(다해) 제1987호



복자성당 십자가의 길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3)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단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회개를 바라십니다. 다른 적당한 때를 기다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서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돌보며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1독서 탈출 3,1-8 ㄱ. 13-15 **제2독서** 1코린 10,1-6.10-12 **복음** 루카 13,1-9.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비움의 약함... 그리고 하느님

여운동 바오로 신부 | 교구 관리국 차장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는 아름답고 나에게서는 고요하다.” 오래전 왜관 분도수도원에 갔을 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 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글이기에 지금까지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글이기도 합니다.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 모세의 요청에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너를 위하여 있는 나다. 네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외면하지 않고 항상 곁에 있으면서 함께 하는 나다. 나는 너를 위하여 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신명 31,23) 이것이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참 고마우신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있는’ 고마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우리 앞에 내놓으십니다.(신명 30,15)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결단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가 져야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 13,5)

‘나를 위하여 있는’ 고마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루카 13,8-9) ‘갈대가 부러졌다고 해서 꺾지 않으시고, 심지가 꺾어지리라고 해서 끄지 않으시는’(이사 42,3) 인내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인내에 부응하는 결단의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명의 길로 과감히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1코린 10,6)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차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 1,15)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쫓다가 믿음에서 빛나가 많은 고통을 자초했습니다.’(1티모 6,10) 돈, 사람,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자 결단의 삶을 느끼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는 아름답고 나에게서는 고요하다.” 버림은 곧 비움이요, 그 비움 속에 하느님은 현존하십니다. 마치 약하디 약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하느님은 버림의 어리석음 속에 현존하시고, 비움의 약함 속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삶으로 오늘 복음은 나를 초대합니다. **필독**

찬미받으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신종호 베네딕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맑은 비가 내려 땅이 축축이 젖었을 때 우리의 몸을 휘감아 도는 흙 내음을 맡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윽하고 구수한 내음입니다. 이 내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땅과 이 흙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작년 6월에 반포되었습니다. 이 회칙은 가톨릭교회의 신자만이 아니라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회칙입니다.

이 회칙이 반포되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관심에 대해서 기쁘게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교회가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왜 이리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일까요? 교황님께서서는 이 회칙을 통해서 교회 사회교리의 울타리를 더 넓히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서 출발한 사회교리는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까지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서는 이제 사회관계와 국제관계 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 흙, 이 지구의 돌봄에까지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하느님의 창조물인 흙에 대한 책임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족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관계로, 국가에서 이제는 지구 환경 전체로 넓혀집니다.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찬미받으

소서』 회칙은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회칙이 단순히 환경이나 생태에 관계된 회칙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단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물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분들입니다. 맑은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같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농산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는지요. 그러므로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생태회칙이 아니라 사회회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태와 환경에 관한 교회의 사회회칙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지구환경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만남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회칙 160항)

이 물음에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모임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청합니다. **▶**

성당이 고향이 되었으면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 비산본당 주임

얼마 전 평일 낮에 낫선 분이 성당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다가가 “어떻게 성당에 오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넘은 듯한 그분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성당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성당은 매우 컸으며, 신자는 아니었지만 성당 마당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던 생각이 나서 일부러 성당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성당은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라 가끔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성당은 고향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곳이거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어릴 땐 누구나 개구쟁이였습니다. 온 동네를 휘저으며 개구쟁이 짓을 했던 친구들과의 추억 어린 곳, 이런 개구쟁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뻐해 주고 받아들여주던 사람들이 살던 정든 곳이 고향이 아닐까요. 그런 고향을 시인 정지용은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돌아가고픈 곳, 그 개구쟁이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사람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 아련한 추억을 안고 우리 성당을 찾은 그분을 살갑게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모두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수를 안고 찾아 온 성당을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며 옛 추억에 잠겼던 그분은 느린 걸음으로 성당을 떠나갔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그림자만 남기고...

길을 나서면 종종 이삿짐을 실은 차량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생에 몇 번이나 이사를 할까요? 셋방살이 하는 사람은 일년에 몇 번씩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생 동안 얼마나 여러 번 이사를 하겠습니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게 고향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재개발과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만듭니다. 풀을 찾아 가축을 몰고 새로운 곳을 향하던 유목민들처럼 사람들은 오늘도 돈, 권력, 쾌락, 일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쉼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을 신유목민(Neo-nomad)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자기 삶의 뿌리요 존재의 뿌리라고 할 고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무언가를 제공해 줄 새로운 땅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미사 때가 되면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성당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 소리가 아이들 마음에는 추억의 사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성당이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가 되어 추억을 갖고 성당을 찾았을 때 이들을 살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름**

재미있는 교회상식

십자가



가톨릭교회의 십자가는 개신교나 보통의 십자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오상(五傷)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의 십자가는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의 표시이자 상징인 십자가는 원래 이집트, 카르타고 등의 고대 동방에서 죄인을 매달아 처형하던 도구였고 로마시대에는 정치범들을 매단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십자가는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단,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해야 하는 고통 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십자표시(十)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원시 종교들에서부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는 계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신비를 깨우치도록 가르치셨고, 성 바오로 사도께서도 서한들(로마 5,8, 1코린 1,17, 필립 2,8)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주요한 테마로 다루었습니다.



원형 십자가



앵크 십자가



그리스 십자가



라틴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공경은 4세기 초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헬레나 성녀에게 십자가가 발견한데 이어 320년에서 345년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2명의 도둑과 함께 못 박히셨던 3개의 십자가가 발견되어 이를 안치하기 위한 십자가성당과 부활성당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고, 제2차 니체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소아시아의 원형십자가, 이집트의 콥트교회에서 사용하던 십자가, 종횡의 길이가 같은 그리스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라고도 불리는 전

형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라틴 십자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문자 Taw에서 비롯된 성 안토니오 십자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신 성 베드로 사도의 십자가, X자 십자가에 순교하신 성 안드레아 사도의 십자가, 15~16세기에 나타난 교황십자가, 대주교 십자가 등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십자가



성 안드레아 십자가



성 안토니오 십자가



교황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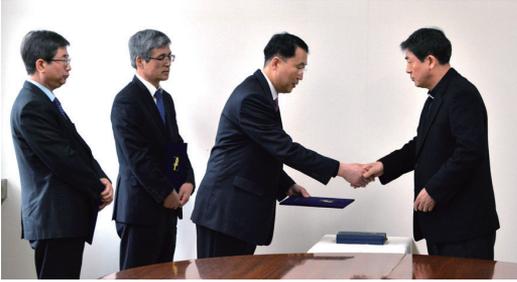


대주교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하며 신자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비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필독**

교구장 동정

■ 학교법인 선목학원 신임 교장, 교감 임명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2월 19일(금) 오전 11시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선목학원 신임 교장, 교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 2016년 청소년 합동 견진성사



교구 내 15개 본당 286명의 청소년들의 합동 견진성사가 2월 21일(일) 오후 2시 30분 성 김대건 기념관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사진제공 : 월간 <빛>

교구 행사

- 2.29(월) _ 대신학원 수직미사(11시) / 학생주보 기자단 입단 캠프(3월 1일까지, 대안교육센터)
- 3. 1(화) _ 대신학원 입학미사(11시, 신학교 대성당)
- 3. 2(수)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 교육(13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의(19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 3. 3(목) _ 3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2주차 교육(9시 30분, 1대리구 칠곡성당)
- 3. 5(토) _ 3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1주차 교육(14시, 3대리구청)
- 3. 6(일) _ YHY 청소년 봉사 동아리 '반하나' 월모임(15시, 성 토마스 청소년 시범 본당)

소식



**생명은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여

일시 및 장소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자신만을 믿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이선이 엘리사벳 순교기념미사	3월 1일(화) 11:00 신나무골성지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3월 5일(토) 10:00 프란치스코눔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2일(수) 11:30 계산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5일(토) 11:00 대안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2일(수) 19:00 용강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3월 5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3.6(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3.8(화)~9(수)

시니어 피정: 3.15(화)~16(수)

장소: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326-5004

3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3.12(토)~13(일)

주제: 외딴 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편)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3.4(금) 18:00~6(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3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아시시 수녀원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3.5(토)~6(일) 1박 2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2만 원

주최: 아시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교육 | 모집

빛떼제기도

일시: 3.12(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

지침, 심리상담사2급, 가곡성가, 발성법,

필라테스,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사

2급, 문학창작소설, 왕초보관공영어, 제대

꽃꽂이, 사범꽃꽂이 / 신청: 254-6115

생명교육 PRIMER 여성강좌 1기

생명의 살림꾼, 봉사자, 생명문화지기 양성

기간: 3.8~5.31 매주(화) 14:00~16: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 73-15)

신청: 783-9817 / (010)3484-3342

http://www.happysister.net/vatelot

중독자 및 가족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2.29(월)~3.11(금)

대상: 사회복지 및 심리전공자

(이론교육 후 주 1회 정기활동 가능자)

문의: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8-3778 / 8778

나도 라디오 작가, PD다 공모

개국 20주년을 맞은 대구평화방송

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시상내역: 당선작 300만원(편당)

공모일정, 응모방법: 홈페이지 참조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암장기이식센터 개관

2월말 개관 / 3.7(월) 본격 진료개시

지하4층·지상4층 규모의 최신식 센터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건강증진센터,

외래진료실, 해외의료사업팀으로 구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암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서속내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HNT 하나투어

(주)이시아투어&(주)김스여행

2016년 대히연 자비외해 선포기념
이태리 일주(로마방문) 9일
출발일: [4/18,5/23,6/27]

☎ 053-956-8888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밤 프란치스코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대성아트랜드 지열,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전력·조명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에너지 절약 컨설팅 RECS

Renewable Energy Consulting Solution

T. 053)573-0205 (손 미카엘)
위치: 대구테크노파크벤처기업센터
(※ 대리점 모집, 일 배우실 분 환영)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라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검색 김민지(사바나)

미소나리 misonari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정신과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행사 | 모임

발달장애주일학교와 부모모임

일시: 3,5(토)부터 매주(토) 15:00
 주일학교-부모모임 15:00 / 미사 16:00
 장소: 성토마스성당(1호선 교대역)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세계 여성의 날

일시: 3,8(화) 10:3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미사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대상: 여성신자 누구나 가능
 문의: 교구 여성위원회, 245-6115

성령봉사회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3.11~13 / 5.13~15 / 7.29~31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2016 대구성령축제

일시: 4.16(토) 10:00, 고령 월막
 강사: 이로니 스피다로(Ironi Spuldaro)

교육 | 모집

관덕정 사순 영성특강

일시: 3,5(토) 16: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성당
 강사: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신학 및 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개강: 3월초 / 성서론, 윤리신학, 신구약
 성경과정, 성경입문, 음악, 만년의산양, 민
 중전례신심, 철학자들의신, 공의회역사, 테
 마성경, 에니어그램, 사주-주역, 생태회칙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앞산밀 북카페 상영영화

첫째주: 프랑수영화 특선
 둘째주: 영화로 보는 세계의 역사
 셋째주: 뮤지컬 특선
 넷째주: 과학다큐멘터리 특선
 매주(금) 14:00 / 문의: 622-1900

채용 | 안내

오양원(파티마홀) 입주자, 간호사 채용
 입주: 장기요양 1~5등급(여성어르신)

채용: 간호사 1명 / 주 5일 주간근무
 문의: 324-1188(팔달교 근처)

교구청 사제관 직원 채용

대상: 신앙생활에 모범인 여교우
 영양실: 만 35세~60세
 문의: 관리과, (010)9206-3224

산격성당 사무원(여) 채용

대상: 본당 사무실 근무를
 희망하는 미혼 여성
 문의: (010)3057-7698

부활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3.11(금) /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교육병포함), 부사관, 장교제의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성물 봉헌

봉헌을 앞둔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의 성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제대, 감실, 십자가, 독경대, 촛대, 14처,
 스테인드글래스, 성전내외부문, 성모상 등
 문의: 범어성당, 744-1391 / 1394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면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 오전 11시 5분~12시 / 재방송 주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3월 5일(토), 12일(토), 19일(토) 이태정(마리벨) 수녀(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3월 26일(토) 전영순(에반젤린) 수녀(투스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에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피타미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성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중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백 신경외과 의원
 16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흉관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자기주도학습전문
UP학습코칭·논술
 글분석·공부방법·다중지능검사
 윤종선(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진동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